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전주서 논한다

전주시·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성공 위해 지역 조직위원회 발족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 등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을 논의하는 장이 전주에서 펼쳐진다. 전주시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의장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는 오는 9월 말 전주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의 성공을 위해 22일 사회혁신전주에서 지역 조직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전주시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오는 9월 말 전주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의 성공을 위해 22일 사회혁신전주에서 지역 조직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이끈다.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최 전까지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를 대회 전반에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는 등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게 된다.

이에 앞서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019년 거제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화성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는 전라북도·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제로플라스틱 객리단길 시범사업'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생태적 가치를 도시의 핵심가치로 추진해온 전주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파급력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탄소중립을 위한 범국민 실천 행동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대상 공모전 시상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시민 실천 행동을 담은 '탄소중립 대국민 선언 in 전주'를 채택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시민 참여를 촉구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회 지역 조직위원회에는 시민사회 단체 및 민관협력기구와 전주시 유관기관을 포함한 총 48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유혜숙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 오창환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 등이

문화재지킴이날 기념식 전주서 열려

문화재청·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전라감영서 의전 진행극 등 열고 유튜브 생중계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의 조선왕 조실록과 태조어진을 정음 내장산으로 옮겨 소중히 문화재를 지켜온 문화재지킴이날(6월 22일) 제정의 배경이 됐던 전주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과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김호태)는 22일 전라감영에서 제3회 문화재지킴이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유튜브(문화유산채널)를 통해 생중계했다.

문화재청이 지난 2018년 제정한 문화재지킴이날은 온 국민이 문화재의 가치를 바로 알고 함께 기르고 지키는 취지의 기념일로, 이날 기념식은 지난 2019년 정음시내장사, 2020년 서울시 국립고궁박물관에 이어 기념일 제정의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전주에서 열렸다.

전주는 지난 1592년 임진왜란 발발 당시 전라감사 이광, 전주부윤 권수, 경기전 참봉 오희길, 정음 유생 안의, 순흥록 등이 전주사고의 실록과 태조 어진을 정음 내장산으로 옮겨 문화재를 지켜낸 역

사적 장소로, 이날을 기념해 문화재청은 6월 22일을 문화재지킴이날로 제정했다.

기념식은 실록구일사(實錄求一事)를 주제로 실록과 어진이 옮겨지는 과정을 이야기로 풀이해 마당극과 전라감찰사 5인이 풀이하는 의전 진행극 등으로 진행됐다. '전라감영이 돌아왔다'라는 역사해설 프로그램도 특별행사로 열렸다.

이날 시작된 '문화재지킴이날 홍보 전시회'는 26일과 27일 경기전 발 발 당시 전라감사 이광, 전주부윤 권수, 경기전 참봉 오희길, 정음 유생 안의, 순흥록 등이 전주사고의 실록과 태조 어진을 정음 내장산으로 옮겨 문화재를 지켜낸 역

/김윤상기자

전라감영·서노송예술촌에 5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전라감영과 서노송예술촌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신계숙)는 전라감영로 일대 4대와 서노송예술촌 1대 등 총 5대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전라감영로와 서노송예술촌 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가동 중인 완산구는 오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정상 단속에 나서게 된다. 계도기간 중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금지 계도문이 발송된다.

완산구는 이에 앞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했으며, 대상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변 상가에 단속 실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시민 홍보에 힘쓰고 있다.

신계숙 구청장은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것"이라며 "신규로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소상공인·강소기업 지원 기반 구축 집중

전주시, 내년 말까지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위한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구축

전주시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강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할 기반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는 내년 말까지 팔복동 소재 구청소년자유센터를 리모델링해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라이브 커머스의 성장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커머스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게 된다.

2065.63㎡(625평) 규모로 조성되는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에는 소상공인들의 라이브 커머스 지원을 위한 스튜디오 2곳과 녹음실, 편집실, 교육장, 공유오피스 등이 갖춰진다.

이곳에서 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홍보 콘텐츠 제작 교육과 기획상품 개발은 물론이고 NS홈쇼핑의 라이브 커머스 채널과 연계한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의 관광코스를 판매하는 '전주인싸 여행 프로그램'이나 전주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동네

가게 소포장기 프로그램' 등이 구상 중이다.

시는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등 창업기업의 성장을 도울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도 소매를 건어볼였다.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의 경우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280억 원이 투입돼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연면적 1만2650㎡(3826평)에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에는 50곳의 입주공간과 교육·컨설팅 등 네트워크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등 다양한 네트워킹 시설과 함께 시장출시제품 제작 및 양산을 위한 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창업 이후 성장이 필요한 지식기반 업종과 기계 관련 제조업 등 100여 개 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가는 발판을 제공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 내에 개관한 전주혁신창업허브, 오는 2023년까지 조성 예정인 복합소재가공지원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팔복동 권역을 기업성장의 거점

이자 지역경제의 산실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중소농동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에는 내년 2월까지 총사업비 243억 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200㎡(2783평) 규모로 신산업융합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된다. 신성장산업분야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30개 기업입주시설 등 창업지원시설이 구축된다.

이외에도 시는 전북대학교 내에 오는 2024년까지 산학공동 실험실인 산학융합플라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1462㎡(3467평) 규모의 산학융합플라자에는 나노, 탄소, 바이오분야를 이끌 50여개 혁신실과 디자인스튜디오, 머신룸, 산학협력 공동실험 실습관이 들어서게 된다.

향후 시는 이런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재직자 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성장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다.

/김윤상기자

'전주푸드 친환경 농산물' 슬로시티 특산물 인증

방울토마토, 애호박, 감자 등 전주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된 전주푸드 농산물이 슬로시티 특산물로 인정받았다.

전주시는 전주푸드 친환경 농산물 20개 품목이 최근 한국슬로시티본부로부터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한 슬로시티 특산물로 승인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슬로시티 가입 자치단체장의 추천과 한국슬로시티본부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는 슬로시티 특산물은 슬로시티의 활성화와 특산물의 우수

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2년간 상표를 부착할 수 있다.

슬로시티 특산물로 지정받은 품목은 방울토마토와 애호박, 감자, 고구마, 오이 등으로, 천적을 활용한 총해방제, EM 미생물을 활용한 병해예방 및 작물관리 등 친환경 농업으로 안전하게 재배된 품목들이다. '전주푸드 친환경농산물'은 슬로시티 브랜드 인증마크를 부착해 이달부터 전주푸드 직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집 급식·위생·방역 점검

전주시가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에 나섰다.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신계숙)는 오는 8월 13일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 137개소를 대상으로 급식·위생 및 코로나19 방역·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전체어린이집 232곳 중 102곳은 급식·위생점검을, 35곳은 코로나19 방역·안전점검을 중심으로 현

장점검이 진행된다. 완산구는 현장점검에 앞서 전체 어린이집에 지도점검계획을 통보한 상태로,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했다.

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윤상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